

50. 복음 전파의 영향력

신앙고백

찬 송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사도행전 16장 16-34절

말씀묵상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복음은 귀신들린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풀어 주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 전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1. 귀신들린 사람을 고칩니다(16-18).

기도처로 향하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들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향력은 즉시 물러갑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 묶인 것들을 풀어 줍니다(19-26).

바울과 실라는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주인들의 고발로 많은 매를 맞고 묶인 채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방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죄로 인해 묶여 있는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3. 가족을 구원합니다(27-34).

밤에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 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탈출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자결하려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를 믿으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맺는말.

복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나쁜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과 가족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적용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경험을 나눠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인도네시아선교(김영생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2. 예배안내

교회는 좌석수의 5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20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교회 봉사자 모집

2022년 교회학교 교사(어린이부, 청소년부)와 방송실을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교역자들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교회요람 준비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가 달라진 분들은 목자 혹은 교역자들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

각 부서는 감사 자료를 19일(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탄선물나누기

성탄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산타선물(개당 5만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께서는 선물 받을 이웃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7. 예배위원안내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2면 하단과 PPT 화면의 예배위원 안내를 확인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9.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새로 등록한 가족

김현대·김정은집사 : 9목장(스스로)
김종길성도 : 4목장(스스로)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지 휘 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21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117. 구주강림 3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14장 다같이

기도 1부:정귀자 권사

2부:최영란 집사

성경봉독 미가 5장 2-4절 (구약 1294) 인도자

찬양 주 예수 내 산 소망 영상

말씀 구약의 크리스마스(3)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임창세 목사

결단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송영 행복 다같이

※축도 임창세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씀 : 천광우 목사

말씀 : 임창세 목사

둔전아침묵상

【미가 5장 2-4절】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 그가 여호와와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1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광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정구), 말송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신교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둔전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방법

1. 카카오톡에서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2. 둔전교회를 검색합니다.



둔전교회



3.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버튼(채널추가하기)를 누릅니다.



4. 채널을 통해 둔전아침묵상과 교회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임창세·주리애 김성혜 박명원·윤영임 신새벽 신한례 양웅모·김영주 윤주영
임근실 정재현 정진영 주종찬 천광우

◆ 감사헌금

김수매 김용수·이미숙 명민주 박상민·김영옥 박연우 백승환·최미연 유병희
이말자 임지은 정귀자 최영란 황미나 무명3

◆ 성탄감사헌금

김주은 전명숙·김삼수

◆ 선교헌금

백영준 백영훈 주영순 무명

◆ 건축헌금

박정아 양준원

12월 봉사위원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6일	1월 2일
예배 기도	1부	정귀자	이말자	하연주	이복음
	2부	최영란	최광준	김영주	안준조
	3부	비대면 영상예배			
헌금위원		1부 : 신연호 2부 : 김용수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성탄절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540,000	1,639,000	360,000	40,000	100,000	15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